

# Newsletter

## 더사인 방학이 끝나고 일상으로

네팔과 인도에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더사인이 1 주일의 긴 시간이 드디어 끝나고 학교는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아직 시골에 가서 돌아오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지만, 그래도 일상은 그렇게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사인 명절이 끝났지만, 2 주뒤에 다시 큰 명절중에 하나인 띠할이 4 일다시 시작하기때문에 지금은 두개의 큰 명절사이에 낀 2 주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학생들 소풍이나 수학여행이 계호기되어있는것이 네팔의 국룰입니다. 언약학교도 이번주와 다음주 기간에 유치원부터 10 학년 학생들이 그룹별로 나누어서 소풍을 다녀오려고 계획중입니다. 네팔의 소풍은 우리내 어린시절 도시락을 싸들고 산과 들로 가서 게임을 하고 도시락을 먹으면서 노래와 춤을 즐깁니다.

큰 학생들은 조금 멀리 떨어진 계곡 같은 곳에 가서 밥을 해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길에 안전이 늘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가는 길에 안전하게 다녀올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소모가 아닌 창조로

11 월 14 일에 IBA 에서 주관하는 zoom 으로 하는 세미나에 스피커로 한 섹션을 맡게 되었다. 젊은 청년들에게 선교현장에서 일하는 BAM 에 대한 나눔을 요청받았기때문이다. 청년들에게 선교 현장에서 사용되어지는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나누는 첫번째 꼭지는 "소모에서 창조로" 생각의 전환이다.

선교컨퍼런스에 가면 많은 후보생들이 자신들이 대학교때 공부했던 전공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어떤 방식으로 섬기고 쓸수 있을까에 대한 호기심으로 질문을 대부분한다. 나도 그 시절 선교지로 나가기 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전공을 가지고 선교지를 어떻게 섬길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선교지를 고민했던 시절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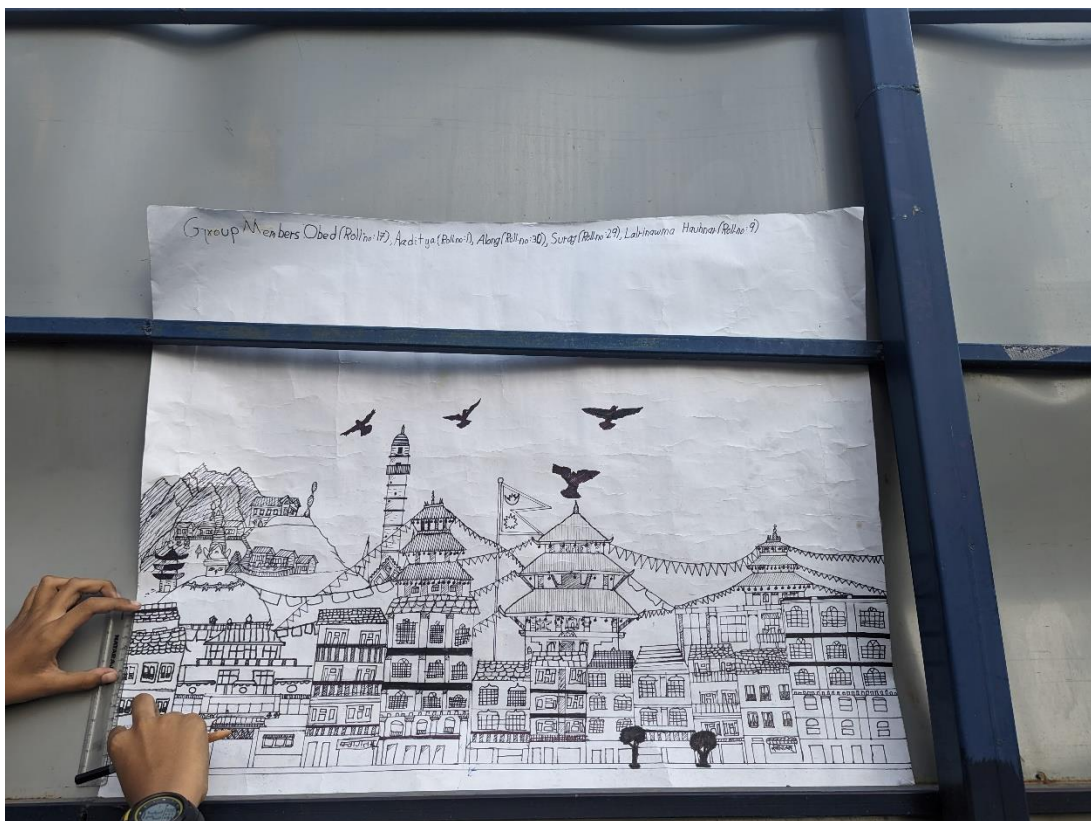
실제로 선교지에 나와서 많은 선교사들과 내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면 선교와 사역에 대한 접근법이 가지는 기존의 한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 내가 할수 있는 일, 그리고 잘하는 일을 가지고 현지인들과 사역지를 섬긴다는 관점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모하고 소진하겠다는 관점을 가지고 간다.

그렇게 선교지와 현지인을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현장을 뛰어드는 경우 보통 10 년안으로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선교사역을 한다는 것을 봉사와 섬김으로 제한하고 선교사역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 에너지를 소모해서 나눠줘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게 되기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선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상황과 context 를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새로운 생태계를 창조하는 관점으로 접근할때 복음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볼수가 있다. 그러한 특수한 상황가운데서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이 사용되어질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지만, 새로운 상황가운데서 창조가 만들어내는 유연성과 공간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임팩트와 영향력을 줄수 있다.

소모하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늘 무엇으로부터 공급받고 나누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된다. 어느순간 공급이 끊어짐을 보거나 혹은 내가 말라버렸다는 느낌이 들때(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변화도 없고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때) 다른 공급원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며 탈출구를 찾게 되는 것이 일상적이게 된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복의 근원(source of blessing)이 되고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곳이 되는 것인데, 사역을 하면할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메말라 가고 있는 자신들을 볼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사역을 소모적인 관점에서 창조의 관점으로 변화시킬때 우리는 새로운 길을 만들수 있고, 새창조에서 오는 에너지는 우리 뿐만이 아니라 다른이들에게 회복을 줄수 있다.



### 월페인팅 시작

6학년 아이들에게 네팔의 전통 가옥과 풍경을 담은 그림을 주고 학교에 월페인팅을 위한 밑그림을 시작하였습니다. 몇몇이 짝을 이루어서 프로젝트로 진행하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열심히 참여해주어서 의미있는 시간들이 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안에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는지에 대한 배움의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습니다. 네팔 학생들을 가르치다보면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종종 발견하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안에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 네팔 서쪽 지역의 지진

몇몇 분들이 카톡으로 안부를 물어주셔서 기도편지에도 남깁니다. 네팔에 11월 3일 밤 12시에 서쪽 자자르콧이라는 지역에서 진도 6.5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서 카트만두에서도 약 10분간 건물이 흔들리는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아서 밖에 잠시 피신하고 있다가 지진이 멈춰서 들어왔습니다.

극서부 지역에서는 자고 있다가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를 통해 약 120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큰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사상자가 더 나올수도 있다고 합니다. 구조작업이 조속히 진행이 되어서 사상자가 줄어들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